공동체 소식

연중 제2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이 시대에 하느님의 평화를 주소서.

▣ 이번 주간의 축일

- 1/17(화) 성 안토니오 아빠스 기념일,
  1/21(토) 성녀 아네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

▣ 2017년 가정기도 신청에 대하여

- 가정기도를 원하시는 가정은 전례부를 통하여 '가정기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기도의 지향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1월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2017. 1. 21(토) 오전11:30.

▣ 1월 로렌스 공동체 미사는 없습니다.

▣ '세계 이민의 날 미사' 안내 (1/15, 주일)

- 일시: January 15, 2017 at 5:00 pm.
- 장소: St. Patrick's in Kansas City, KS
  (1086 N 94 St, Kansas City, KS 66112).
- 준비물: 한국 고유 의상 및 장식, 미사 후 간식 나눔.

▣ '설' 합동위령미사 안내(본날 1/28, 토)

- 일시: 2017. 1. 29(주일) 오전11:00 주일교중 미사
- 미사봉헌 신청: 전례부를 통하여 미리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책정에 대한 안내

- 안내: 교무금은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또한 의무라는 뜻은 하느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을 위하여 은총을 베풀어주실 때 조금의 오차도 없다는 뜻도 됩니다.

  성경말씀에 "여러분이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그대들도 받을 것입니다."(마태7,2)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329	212	170	2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	-
	-	-
차 주	문예나 요안나	문호진 안토니오
	차민서 임마누엘	이원준 요한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	-
		-
차 주	김대연 요셉	김태중 예레미야
		김시연 엘리사벳

▣ 애찬 봉사자

금 주	이민자의 날 미사(St. Patric's, KC, KS)
차 주	김시연, 신혜경, 김말자

▣ 헌금 봉사자

금 주	이민자의 날 미사(St. Patric's, KC, KS)
차 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1/8일	69명	301불	650불
김태선, 김태중, 김동술, 현교정, 홍순익, 김정원, 이영민 (1/1, 1/8; 총 7세대)			
건축헌금	지난주 합계: 0불, 총합계: 9,600불		

연중 제2주일 |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 2017년 1월 15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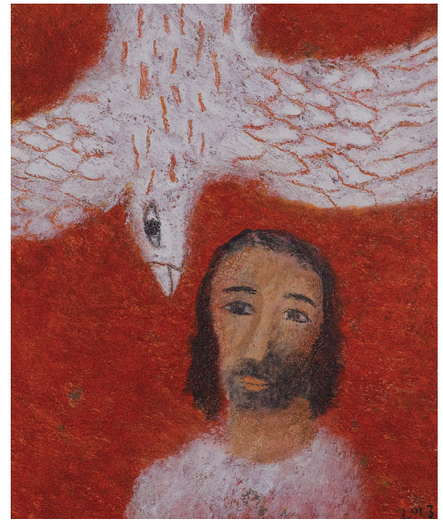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파스카 어린양이시고 인류의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을 새 계약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의 힘으로 세례의 은총을 굳건히 하시어 우리가 온 삶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을 증언합시다.

그림 묵상

세상 안에 머무심

"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요한 1,32)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 보내시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심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9,3.5-6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화 답 송 :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시작입니다. 1,1-3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9-34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쉐 마

예수님 위에 머무르신 성령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마태오, 마르코, 루카 복음도 이 점을 이야기하는데, 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를 체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요한 복음서는 세례자 요한도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합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와 머무는 사건이 예수님의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공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성령이 내려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머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께서는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활동과 함께 하십니다(루카 4,1.14; 10,21).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에도 그분과 함께 하셨고(루카 1,35),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어 제자들이 당신의 사명을 지속해 나가도록 명하십니다(요한 20,23). 바로 그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머물고 계신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해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내려오는데, 히브리어로 비둘기를 '요나'라고 부릅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래 뱃속에서 사흘을 머물다가 살아난 구약의 예언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밝히시는데(마태 12,38-42), 요나처럼 당신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계속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공생활이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향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요한은 이런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 마지막 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모든 맏아들과 맏배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 없애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세상의 죄는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종인 메시아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을 맞게 된다는 주제는 이미 이사야서의 수난받는 하느님의 종(이사 52,13-53,12)의 노래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언합니다. 물론,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명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그분 위에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본 뒤 즉시 예수님께서 수난받는 주님의 종으로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될 하느님의 어린양이심을 알아본 것입니다. 아람어로 '양'과 '종'이 동음이의어라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시던 아람어로 탈리아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도 있지만 '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람어로 하느님의 종을 하느님의 양이라고 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 20,23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양, 하느님의 종으로서 당신의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 넣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수행해야 할 사명 또한 예수님의 사명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를 치워 없애는 일, 곧 하느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는 일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중시기를 시작하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사명을 기억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염철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교리산책

'원죄' 교리의 핵심은 무엇일까?

거리에서 누군가 외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이 외침은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 말에 담긴 핵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 과일을 먹으면 하느님처럼 될 거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과일 하나 따먹은 일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였으므로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또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하였으므로 하느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조들이 지은 죄 즉, 원죄(原罪)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죄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쳐서 죄와 고통과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로마 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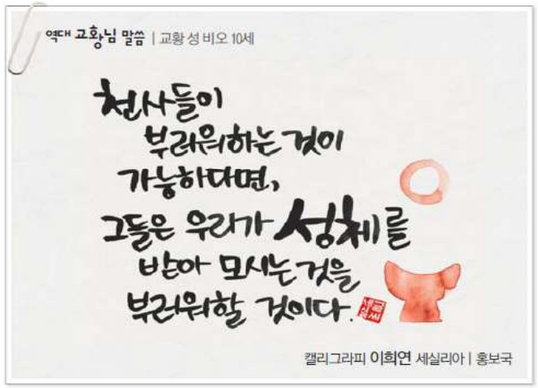
'먼 옛날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첫 사람들의 죄를 강조하는 것은 죄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을 드러내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죄 교리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복음의 '이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원죄 교리의 핵심은 인간의 죄스러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은총도 풍요롭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 5,19)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장



복음묵상

용기

용기

이런 말 자주 쓰시나요?

아… 알 것 같은데?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데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아는 것만을 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체면과 이해득실을 따지며
대답하지 않는…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요한 1,31)

- 임의준 신부